

김정일,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베이징서 경제협력·식량지원 등 논의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간의 북중 정상회담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북한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말한데다 김 위원장이 장춘(長春), 양저우(揚州), 난징(南京) 등에서 경제시찰을 한 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니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간 경제협력 방안이 거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

외한 한국과의 교역중단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데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어서 북한과의 경험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북중간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분야는 라선 지역과 훈춘(琿春)간의 도로연결 문제다. 북중은 이미 이달말 라선-훈춘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하기로 한

상태.

창춘에서 지린(吉林), 무먼(圖們)을 거쳐 훈춘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이미 완공된 상태여서 도로 보수에 이어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이뤄지면 중국은 동해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라선의 부두사용권을 획득한 상태기 때문에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이뤄지고 차량의 국경통과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중국은 소원하던 동해 해상항로를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황금평 개발사업이나 두만강-압록강 사이에 둔 변경무역 확대방안도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의 주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북중간 주요 경제현안인 교역 및 투자확대 방안, 중국기업의 북한 인력 고용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를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서 찾으려는 북한이 이번 김 위원장의 경제현장 시찰을 통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일부 수용할 경우 북중 경제협력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국식 개혁개방은 시장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기업투자나 교역확대 등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아기날기 좋은세상 만들기” 25일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제1회 아기날기 좋은세상운동 광주 경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MZ 고엽제 보상기간 미군이 더 길어

70년 8월~71년 8월 복무한 한국군은 못받아 美 올초 보상기간 2년 연장... 추가 살포 의혹

미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 비무장 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미군의 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에서 근무했던 미군으로 올초 초확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1970년 7월 31일까지 DMZ에 근무한 군인을 고엽제후유증 피해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보상 대상 군인의 복무 만료시점보다 1년 이상이 더 긴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이자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한국 땅에 뿌려졌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한국군과 미군의 복무대상 기간이 다

른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과거 발표된 고엽제 살포기간 이후 추가로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미 보훈부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까지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확대했다.

보훈부는 지원대상 군인을 “이 기간 고엽제가 살포된 DMZ 내부나 인근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한 군인”으로 규정했다.

1968년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첫 확인된 이후 한·미 당국은 1968년 4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1969년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발표했다.

미 정부가 고엽제피해 보상을 1971년 8월말 근무 군인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한 DMZ 지역의 마지막 고엽제 살포 시점인 1969년 7월 말 이후에도 DMZ에 계속 고엽제가 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경북 왜관 지역 고엽제 매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 조사단이 이르면 26일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미국과 한미공동 군사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공동조사단의 인원과 범위 등 조사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집트, 무바라크 법정에 세운다

시위대 살해·부정축재 유죄 입증엔 최고 사형

시민혁명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시위 참가자 살상과 부정축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현지 관영 뉴스통신 메나(MENA)가 24일 검찰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압델 마기드 마흐무드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바라크와 그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을 형사법정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 부자는 지난 1월 25일부터 18일간 이어진 시민혁명 때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의 살상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늘리고 공공자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모하메드 엘-엔미 법무장관은 최근 현지 유력 일간지 알-아흐람과의 인터뷰에서 무바라크가 시위대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두산악

광주의 자존심 백두산악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등산의류, 장비, 오토 캠핑까지 전품목을 할인해 드립니다!!

구매 고객님께 사은품을 증정해드립니다

할인 행사점

- 백두산악 증심사점 T.236-1187
- 광주아울렛점 T.267-2562
- 서방사거리 밀레 T.266-8848

NOIDISK, MOUNTAIN EQUIPMENT, LEKI, OSPREY, TATONKA, mello's w, Lowe alpine, Coleman, snow peak, KOVEA, PRIMUS, NATIONAL GEOGRAPHIC PHOTOGRAPHY, SUUNTO, PETZL, DANA, CAMPLINE, MASO, COOP, LEWA, Timberline

sprayway, ARCTERYX, Rab, CARO, Mystery Wolf, adidas, patagonia

“주민·통일위해 北 비핵화 필요”

김성환 장관 강연

김성환 외교교통산부 장관은 25일 “북한 주민의 생활과 통일 기반을 닦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 외교의 비전과 청년들을 향한 바람’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외교부의 당면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발전정책을 통해 많은 원조를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살림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물자를 도와주는 것은 소비만 하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을 위해서도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변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부터 트위터를 통해 젊은 세대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은 트위터 주 고객인 대학생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평화 길 찾아야”

내달 서울서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사)김대중 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6·15 남북정상회담 11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9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학술회의와 특별강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김대중 평화센터와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백낙청),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김성재)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행사위원장을 맡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각계인사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11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오고, 멀지 않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6·15 이전의 대결과 불신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다시 이 행사는 주제로 정세현 김대중평화협력,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회의는 ‘기묘에 선 한반도 평화=북핵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된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이종석 전 통일

부장관이 기조발표를 하고, 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 백종전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수훈 전 교대학 부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어 최화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세계적 평화모델로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갖는다.

이희호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6·15 1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히는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정당 대표, 외교사절을 비롯한 정치·종교·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인사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美, 北·이란 등 무기개발 지원기업 제재

조선단군무역 등 16개 기업·개인 대상

미국 정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이란·북한·시리아 비핵산법(INKSNA)에 따라 지

난 23일자로 14개 외국기업과 2명의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북한(기업 1개)을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3개),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 5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기간에 이들 기업이 개인과 어떤 거래, 지원, 허가도 중단하게 된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뎡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의상·외벽·시공 사진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